

기고

심폐소생술 교육

'누구에게 어떻게'가 생존을 가른다

지난해 11월, 광주 전남대학교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던 40대 남성이 심정지로 쓰러졌다. 절체절명의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현장에서 운동 중이던 비번 소방관과 응급구조사가 즉시 달려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 것이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골든타임을 완벽히 지켜낸 덕분에 남성은 소중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이 드라마틱한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를 던진다. 만약 그 자리에 전문가가 없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 현장을 누비는 구급대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심폐소생술은 단순히 '방법을 아느냐'보다, '누가,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교육을 받았느냐'가 생사의 갈림길을 결정한다고 말이다. 이제는 양적인 보급을 넘어,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설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다.

1. 성인: 완벽한 기술보다 '행동하는 용기' 일반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교한 술기가 아닌 즉각적인 행동이다. 현장에서 마주하는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혹시 잘못될까 봐" 겁이 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경우다. 심정지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성인 대상 교육은 가슴 압박 위주의 '핸즈온리(Hands-only) 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반복하여 몸에 새겨야 한다. 특히 "갈비뼈 골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구조자가 느낄 심리적 장벽과 법적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

2. 학생과 고령자: '생활 습관'과 '현실적 대안' 학생들에게 CPR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몸에 밴 습관'이 되어야 한다. 연령별 신체 발달을 고려해, 위급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119 신고와 주변 도움 요청을 병행하는 체득형 교육이 핵심이다. 반면, 가정 내 심정지의 최초 발견자가 되기 쉬운 고령자들에게는 '젊은이 기준'의 강도 높은 압박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무릎 보호 자세나 체력 부담을 줄인 압박법, AED 음성 안내 활용법 등 실제 실행 가능한 수준의 교육이 이뤄져야 포기하지 않고 구조에 동참할 수 있다.

3. 특수 직군: '공간 맞춤형 실전 대응' 교사,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등은 사실상 현장의 '예비 구급대원'이다. 이들에게 핵심적인 이수증 중심 교육은 무의미하다. 자신이 근무하는 실제 공간의 동선을 반영한 훈련, AED 위치 확인, 팀 단위 역할 분담 등 현장 밀착형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실제 상황에서 작동하는 구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준비된 시민이 기적의 주인공이다 전남대 운동장의 사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아는 시민'이 곁에 있을 때 생존율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하는지 증명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이제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누구에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대상별로 정교하게 설계된 교육은 시민들에게 막연한 두려움 대신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다. 생명을 살리는 기술은 특별한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제대로 준비된 시민 한 사람이 있다면, 기적은 우리 이웃의 운동장에서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윤승빈

취업을 준비하는 조카가 뜬금없이 '2차 함수와 재판'과 관련 설명을 요구했다. 평소 수학을 싫어한 사람으로서 이에 답변하려니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그것이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다가 서재에서 흥성대가 저술한 '수학 정석'을 펼쳐 고교 시절 추억을 떠올렸다. 기본 정석은 이해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2차 함수와 연결해 보려니 자칫 견강부회(牽強附會)식 논리가 될까 두렵기도 하다.

칼럼

이동환 AOU대학교 전 교수



y=ax²+bx+c와 판결

인 행위, 인간 행동, 도시 구조 등 2차 함수가 반응하고 있는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경제학에서는 상품의 가격과 수요량, 공급량 간의 관계에서 가격이 낮을 때 수요가 증가하고, 너무 높으면 감소하는 소비 행태가 그렇고, 범죄율, 실업률, 자살률 등의 사회 통계는 특정 시점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그렇고, 도시 인구 분석할 때, 도시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인구 밀도가 감소하는 패턴이 또한 그렇다. 요즘은 정책 여론지지도, 선호도, 만족도 등은 어느 시점까지 증가한 후 다시 감소하거나 반대로 변화하는 곡선이 2차 함수의 적절한 모델이 되기도 하며, 학교에서 교육 성과 분석할 때, 공부 시간과 성적 간의 관계는 일정 수준까지는 성적이 향상되지만, 과도한 학습으로 인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만 더 소개하면 주식 투자가 또한 그렇다. 어떤 주가가 실적, 테마, 기대치로 초반에 완만히 상승하다가 중간에 잠시 급등, 그 후에 힘이 빠져 하락세를 보이는 N포물선 모양의 패턴으로 시간에 따라 주가가 과열된 경

우이다. 이 지점에서 많은 게이미들이 손해 보는 사례이다. 반대로 약재가 계속 하락하고, 매도 압력이 감소하다가 서서히 반등하는 U패턴으로 꼭짓점(최솟값)이 바닥을 보여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구간으로서 상승 에너지와 하락 에너지가 바뀌는 지점이다. 결국 주식에서 포물선 꼭짓점은 고점과 저점을 말하지만, 2차 함수처럼 예쁘게 움직이지 않고, 뉴스나 심리, 외부 변수에 의거 힘의 균형이 바뀌는 다양한 포물선 형태를 보인다.

2차 함수와 관련해 여러 가지 사례를 보았듯이 우리 주변의 다양한 현상들도 일정한 수학적 원리를 통해 설명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2차 함수와 판결'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라는 전제하에서 수학적, 학문적 성격과 특성이 서로 정확하게 병합하지 않지만, 구조와 논리 전개 방식에서 닮은 점을 알 수 있다.

2차 함수 y=ax²+bx+c에서 a는 사건의 사실관계 (방향과 전체적인 성격 결정), b는 법리 적용 (기울기 변화에 영향), c는 주문(질문)이라는 구조적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2차 함수 꼭짓점은 전체 흐름에 가장 중요한 지점이므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유죄/무죄,

승소/패소가 갈리는 결정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윤 대통령의 무기징역 사건도 2차 함수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던 시기는 함수의 상승 구간으로 정치적 영향력과 권한이 최고점을 향해 올라갔던 시기다. 함수의 최고점인 꼭짓점은 윤 전 대통령에게는 비상계엄 선포 사건(2024.12.3)이 바로 그런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이 시점이 꺾이는 순간, 헌정 질서 논쟁, 재판 진행 등으로 상황이 변하면서 탄핵, 구속,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런 결과로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혐의에 대한 법적 결정으로 무기징역의 판결 받은 것이다.

정치적 판결을 2차 함수의 비유하는 것은 찬반의 힘이 서로 맞서다가 결국 하나의 결정적 순간을 중심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방향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변곡점을 통해 변화가 극명하게 바뀌는 지점에서 정치적 주체(지도자, 국민)가 감정이나 진영논리에 집착하면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변곡점(꼭짓점)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재설계의 기회이기도 하다. 권력자가 과도하게 힘을 얻는 순간이 아니라 제도와 신뢰가 시험받는 순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다.

2차 함수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말한다. 법 또한 여론이 아니라 원칙으로 판단해야 한다. 수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단순한 계산만이 아니라, 조건과 구조 속에서 도출되는 것은 필연성을 얻는 것이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오늘의 운세 2026년 2월 25일 수요일 (음력 1월 9일)

Grid of 12 daily fortune tellings with animal icons and text. Topics include career, health, and relationships for various zodiac signs.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G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phone numbers, addresses, and subscription rates.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